

Type 02_복지 및 재정전문가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소득상실,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보장확대의 필요성 또한 복지수요의 증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의 증대로 향후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사회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복지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은 바람직한 복지지출의 규모를 영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재정의 적절한 규모를 제시하고 합리적 배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복지재정의 적절한 규모와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와 재정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지는 2회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학술 및 정책연구용 전문조사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통계법에 의해 엄정히 보호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될 우려가 전혀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어떤 의견이 몇 %”라는 방식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 6.

연구책임: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연구참여: 김보민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조사담당: 장대홍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연구팀 팀장

☎(02)2007-0560, csyoung@kipa.re.kr

(02)6011-8005, jjangdae@ksdc.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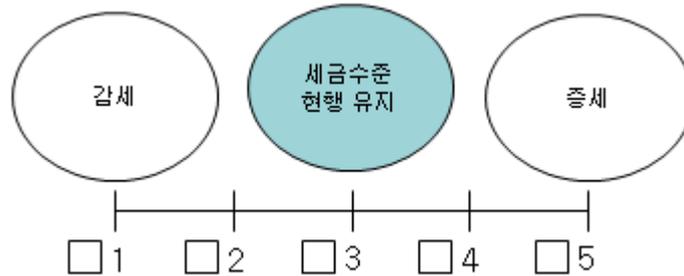
※ 설문지 작성시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지의 안내사항에 유의하시면서 기록해 주십시오.
- ▶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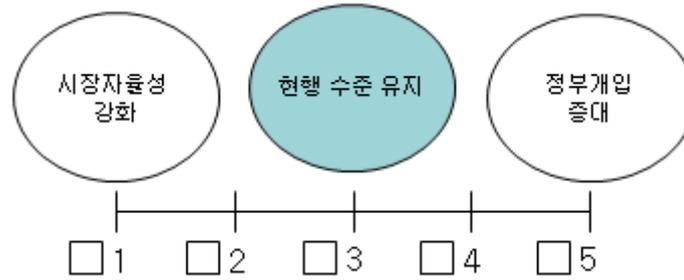
1. 바람직한 복지국가 유형 및 복지규모

문1. 귀하께서는 다음 제시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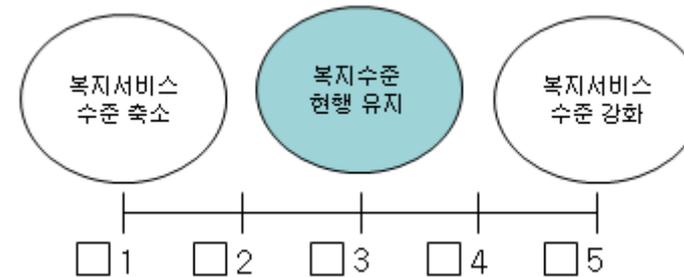
문1-1. 세금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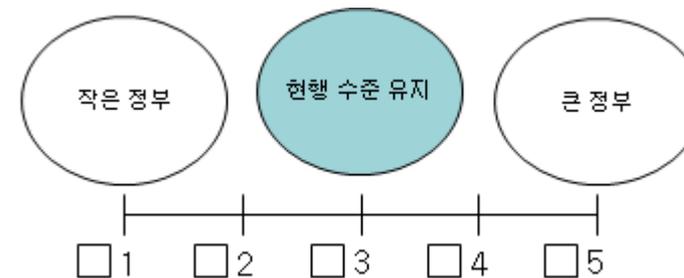
문1-2. 시장자유성



문1-3. 복지서비스 수준



문1-4. 정부규모



문2. 귀하께서는 향후 시기별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재정건전성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	<u>사회복지수준</u> 강화가 더 중요하다 (복지대상자 요건의 완 화, 복지혜택의 확대 등)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	중요성이 동일하다	기타
2-1	향후 1-2년 (2013-2014년)	①	②	③	
2-2	향후 3-5년 (2015-2017년)	①	②	③	
2-3	향후 6-10년 (2018년-2022년)	①	②	③	

문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지출증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아래는 기존연구에서의 논거)

- ① 긍정적 효과
- ② 부정적 효과
- ③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 ④ 기타()

※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1. 긍정적 효과

- 사회복지지출이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어 인적자본을 향상
- 유효수요를 창출·유지
-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계층간 불화와 반목을 완화하여 사회불안요소를 완화
-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경제주체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어 혁신적 활동을 유인
- 경기조절기능이 있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

2. 부정적 영향

-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
-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축동기가 약해져 투자와 자본축적이 감소
- 조세부담으로 인해 조세저항과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
-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

3.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의 결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문4.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에 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 유형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유형

1. 영미형

-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0% 안팎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시장친화적 모형
- 보편적인 복지혜택보다는 **필요계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국가가 지원**

2. 북유럽형(스웨덴, 노르웨이)

- 국민총생산(GDP) 대비 20%-30% 안팎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높은세금, 높은재정지출
- **모든 계층에 대해 보편적으로 국가가 지원**

- ①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GDP 대비 18% 수준)
- ② 북유럽형의 보편적 복지(GDP 대비 25% 수준)
- ③ 기타()

※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 비중

복지국가 유형	국가	복지재정비중			
		GDP 대비		정부재정대비	
		2006	2007	2006	2007
영미형	영국(United Kingdom)	20.4	20.5	46.1	45.8
	미국(United States)	16.0	16.2	44.4	44.3
	호주(Australia)	16.1	16.0	48.1	48.0
	뉴질랜드(New Zealand)	19.0	18.4	48.3	46.7
	캐나다(Canada)	16.9	16.9	42.7	42.7
	일본(Japan)	18.4	18.7	51.1	51.7
	평균	17.8	17.8	46.8	46.5
한국		7.4	7.6	26.6	26.4
북유럽형	핀란드(Finland)	25.9	24.9	52.6	52.6
	스웨덴(Sweden)	28.4	27.3	53.9	53.6
	노르웨이(Norway)	20.4	20.8	50.5	50.6
	덴마크(Denmark)	26.6	26.0	51.3	51.3
	평균	25.3	24.8	52.1	52.0

자료 : <http://stats.oecd.org>, OECD, 2012.

문5. 귀하께서는 차년도(2013년)와 향후 5년 이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복지재정규모는 GDP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IMF가 최근 밝힌 2011년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1753달러(25위)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복지분야 재정규모는 7.7%**이며, **2011년 현재 9% 선**(조선일보. 2011.03.25)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참고자료: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3만불 규모 도달시기 및 당시 복지재정규모)

	시기	GDP 대비 비중
문5-1	차년도 (2013-2014년)	GDP대비 ()%
문5-2	향후 3-5년 (2015-2017년)	GDP대비 ()%
문5-3	향후 6-10년 (2018-2022년)	GDP대비 ()%

※ GDP 3만불 소득 시기의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 수준 비교 (단위: GDP 대비 비율, %)

복지국가 유형	국가	3만불 소득시기의 복지재정 비중			2007년 현재 GDP 대비 %
		3만불 소득시기(연도)	당시 1인당 GDP	당시 GDP 대비%	
영미형	영국	2004	31,791	20.45	20.5
	미국	1997	30,330	14.77	16.2
	호주	2002	30,441	17.00	16.0
	뉴질랜드	2007	28,567	18.39	18.4
	캐나다	2003	31,269	17.20	16.9
	일본	2005	30,312	18.59	18.7
북유럽형	핀란드	2005	30,690	26.02	24.9
	스웨덴	2003	30,418	30.11	27.3
	노르웨이	2000	36,126	21.31	20.8
	덴마크	2002	30,756	26.63	26.0

자료: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997년 이후 자료는 OECD Factbook 2011: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1996년 이전 자료는 <http://stats.oecd.org>, OECD, 2012.

문6. 귀하께서는 소득수준 하위 몇 %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의 내용은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의 2012년 1분기 자료를 대략적인 기초로 한 것입니다.

- ① 소득수준 하위 10% 이하 (월 가구소득 76만원 이하)
- ② 소득수준 하위 20% 이하 (월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 ③ 소득수준 하위 30% 이하 (월 가구소득 230만원 이하)
- ④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 (월 가구소득 290만원 이하)
- ⑤ 소득수준 하위 50% 이하 (월 가구소득 340만원 이하)
- ⑥ 기타: 소득수준 하위 ()% 이하

※ 2012년 기준,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149.6만원(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문7. 만약, 복지재정확보를 위하여 정부예산 내에서 재정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디에서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참고하여 **우선순위별로 3개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단위: 조원)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중소기업)	SOC (4대강 사업 제외 시)	농림 수산 식품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지방교육 교부금)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 행정 (지방교 부세)
2011	14.9	15.2 (6.0)	24.4 (21.4)	17.6 (15.1)	86.4	41.2 (35.3)	4.2	5.8	31.4	3.7	13.7	52.4 (30.2)
2012	16.0	15.1 (6.2)	23.1 (22.8)	18.1 (15.8)	92.6	45.5 (38.4)	4.6	6.0	33.0	3.9	14.5	55.1 (33.0)
예시		1	2									3
답변												

문8. 선행연구(안중범, 2011)에서는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5%, 30%, 35%까지 높일 경우에 가능한 복지지출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복지지출과 재원부담의 연계 메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장기목표**로 지향해야 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뉴 A 저부담-저복지	메뉴 B 중부담-중복지	메뉴 C 고부담-고복지
조세부담률	25	30	35
국민부담률	35	40	45
복지지출	14.7	18.5	22.4
	①	②	③

문9. 복지재정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II. 복지재정의 합리적 배분방안

※ 다음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에 발표한 「2012 나라살림」을 기준으로 복지 영역은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나뉘며, 전자는 총 9개 부문으로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③ 공적연금, ④ 보육·가족·여성, ⑤ 노인·청소년, ⑥ 노동, ⑦ 보훈, ⑧ 주택, ⑨ 사회복지일반을 포함하며, 후자는 3개 부문으로 ① 보건의료, ② 건강보험, ③ 식품의약품안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의료급여, 희망키움통장, 자활사업
- ②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 ③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④ 보육·가족·여성: 영유아보육료, 유아휴직급여, 공공형보육시설, 아이돌보미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 ⑤ 노인·청소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등
- ⑥ 노동: 청년·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기금, 근로자복지지원기금)
- ⑦ 보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 ⑧ 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⑨ 사회복지일반

문10.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 나라살림」의 보건·복지·노동분야 재정투자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사회복지분야의 9개 부문과 보건분야의 3개 분야 중 **향후 가장 크게 증가할 부문**과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별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억원)

	2011		2012		증감율	예시	향후 10년내 가장 증가할 부문 예상	향후 10년내 가장 강화되어야 할 부문
	액	비율	액	비율				
합계 (2개 분야, 2개 부문)	863,926	100.0%	926,305	100.0%	7.2%			
사회복지분야	788,926	91.3%	847,715	91.5%	7.5%			
① 기초생활보장	75,240	8.7%	79,100	8.5%	5.1%	3		
② 취약계층지원	13,427	1.6%	13,946	1.5%	3.9%	1		
③ 공적연금	281,833	32.6%	312,678	33.8%	10.9%			
④ 보육·가족·여성	28,759	3.3%	33,847	3.7%	17.7%	2		
⑤ 노인·청소년	38,759	4.5%	40,510	4.4%	4.5%			
⑥ 노동	126,180	14.6%	131,242	14.2%	4.0%			
⑦ 보훈	38,737	4.5%	40,541	4.4%	4.7%			
⑧ 주택	180,536	20.9%	190,062	20.5%	5.3%			
⑨ 사회복지일반	5,455	0.6%	5,789	0.6%	6.1%			
보건분야	75,000	8.7%	78,589	8.5%	4.8%			
⑩ 보건의료	15,599	1.8%	16,039	1.7%	2.8%			
⑪ 건강보험	57,102	6.6%	60,113	6.5%	5.3%			
⑫ 식품의약품안전	2,299	0.3%	2,437	0.3%	6.0%			

출처: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예산개요. p. 127

11번-13번까지의 문항은 사회복지재정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 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2가지 방안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에서 제시될 비교항목간의 상대적 중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척도에 따라 점수로 부여하여 주십시오.

<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척도 >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	두 개의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
3	약간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강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
7	명백하게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고도 명백하게 향후 중요
9	극단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비교가 안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 값	1, 3, 5, 7, 9 척도의 중간 값으로 이용

< 설문과 응답의 예 >

【질문 예】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문항	방안	중요 ←	동등	→ 중요	방안
1	기초생활보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취약계층지원

【응답 예】 가령, 기초생활보장이 취약계층지원보다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쪽의 5번에 ○표 하시면 됩니다.

문항	방안	중요 ←	동등	→ 중요	방안
1	기초생활보장	9 8 7 6 ⑤ 4 3 2	1	2 3 4 5 6 7 8 9	취약계층지원

- 사회복지재정은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나뉘며, 앞(p.7)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복지분야는 총 9개 부문으로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③ 공적연금, ④ 보육·가족·여성, ⑤ 노인·청소년, ⑥ 노동, ⑦ 보훈, ⑧ 주택, ⑨ 사회복지일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중 8개 부문(사회복지일반은 제외)을 크게 1. 저소득계층, 2. 복지대상, 3. 공적연금, 4. 노동, 5. 주택으로 구분하고, 1. 저소득계층은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2. 복지대상은 ① 보육·가족·여성, ② 노인·청소년, ③ 보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문11. 사회복지분야의 아래 5개 부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방안	중요 ← 동 등 → 중요	방안
문11-1	저소득계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복지대상 (보육가족여성노인 등)
문11-2	저소득계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적연금
문11-3	저소득계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노동
문11-4	저소득계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주택
문11-5	복지대상 (보육가족여성노인 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공적연금
문11-6	복지대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노동
문11-7	복지대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주택
문11-8	공적연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노동
문11-9	공적연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주택
문11-10	노동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주택

※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의료급여, 희망키움통장, 자활사업
- ②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 ③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④ 보육·가족·여성: 영유아보육료, 유아휴직급여, 공공형보육시설, 아이돌보미지원, 다문화가족정책 및 자녀양육지원
- ⑤ 노인·청소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등
- ⑥ 노동: 청년·여성·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기금, 근로자복지지원기금)
- ⑦ 보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 ⑧ 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 재정비촉진사업지원
- ⑨ 사회복지일반

문12. 저소득계층의 아래 2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방안	중요 ← 동 등 → 중요	방안
문12-1	기초생활보장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취약계층지원(장애인 등)

문13. 복지대상의 아래 3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방안	중요 ← 동 등 → 중요	방안
문13-1	보육·가족·여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노인·청소년
문13-2	보육·가족·여성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훈
문13-3	노인·청소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훈

문14.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4-1	사회복지재정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14-2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사용되고 있다.					
문14-3	사회복지재정은 형평성 있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14-4	사회복지재정지출은 의도했던 정책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문14-5	현재 한국의 복지재정은 지속가능하다.					

문15.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70%가 **1인당 월 9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논란과 노인복지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개선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대상자수	폐지	축소	축소	확대
지급액		동결	인상	인상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문1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70%가 1인당 월 9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적은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몇 %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폐지 ② 10% ③ 20% ④ 30%
 ⑤ 40% ⑥ 50% ⑦ 60% ⑧ 70%(현행유지)
 ⑨ 80% ⑩ 90% ⑪ 100% ⑫ 기타 (%)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78 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 124.8 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문17.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만원 ② 7만원 ③ 현행유지
 ④ 13만원 ⑤ 16만원 ⑥ 기타 (만원)

문18.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이 2011년 3조 8,000억 원에서 2028년 26조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래 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법을 개정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문19. 기초노령연금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문20. 기타 복지재정의 배분 등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⑤ 60세 이상
 ④ 50~59세

S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졸(2년/4년/재학중 포함)
 ③ 대학원졸(석사, 박사수료 포함) ⑤ 기 타 ()
 ④ 박사

SQ4. 귀하의 직업은?

- ① 공무원 ② 교수
 ③ 연구원 ④ 기 타 ()

SQ5. 재정 및 복지정책 분야의 전문 경력(재정 및 복지 연구 혹은 직무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OFFICIAL USE ONLY)

작성일자	2012년 월 일	코딩원 확인	
------	-----------	--------	--